

看護教育에 대한 看護學生의 觀心度 調查研究

박정숙

(동산간호전문대학)

—목 차—

I. 緒論

- A. 研究의 意義
- B. 研究의 目的
- C. 用語의 定義
- D. 研究의 制限點

II. 文獻考察

- A. 觀心
- B. 看護教育

III. 研究對象 및 方法

- A. 研究對象
- B. 研究道具
- C. 研究方法

IV. 研究結果 및 考察

- A. 觀心의 개발
- B. 學業에 대한 觀心
- C. 自己自身의 個人的인 問題에 대한 觀心
- D. 臨床實習場에 대한 觀心

E. 試案

V. 結論 및 提言

- A. 結論
- B. 提言

참고문헌

영문초록

I. 緒論

A. 研究의 意義

教育은 人間을 意圖하는 方향으로 發展시키는 行爲로서¹⁾ 급변하는 社會에 調適할 수 있는 知識과 能力을 評價해서 社會에 審與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나아가서 人道의 나아갈 바를 提示해야하는 責任이 있다. 이런 教育의 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教育目的과 細密한 教育課程, 그리고 적절한 教育評價의 기준이 요구된다.²⁾

現代 看護의 개념이 병원중심, 환자치료중심에서個人과 社會의 복리증진이라는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개념으로 바뀜에 따라, 看護教育 역시 부단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³⁾은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社會 속에서 看護education은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즉 精神的・肉體的・宗教的・社會의요인에 效果的 또는 效率的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간호원을 韓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좋은 教育方法論의 原理에서 쉬이 낳아질 知識의 축적보다는 緒程學習의(process learning) 教育을 통해 자주학습능력을 길러 未知의 내일에 도전할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⁴⁾ 1981년 제17차 국제간호협의회 총회에서 김⁵⁾은 未來의 看護教育은 첫째 未來社會에서 요구되는 간호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program을 제공해야 하고, 둘째 效果的인 教科課程의 발전과 수정보완을 계속 진행시켜야 하고, 셋째 할빈 教科課程에 바탕한 訓練을 철저히 시켜야 하며, 넷째 看護教育

1) 임진권, 이규윤, 교육원리, (서울, 동문사, 1974), p. 14.

2) 하영수의, “한국 간호교육 이념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대한간호협회보고서, 1974~1976, p. 1.

3) 김소인, “2000년대의 간호교육방향”, 일간간호, 6:1, 1982, pp. 72~76.

4) 흥여신, “간호행정 및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계획”, 대한간호, 13:5, 1974, pp. 48~50.

5) R.L.B. Neame, & D.A. Powis, “Toward Independent Learning Curricular Design For Assisting Students To Learn How to Learn”, J. of Medical Education, 56:11, 1981, pp. 886~892.

6) 김수지, “미래간호교육자의 역할과 이를 위한 준비”, 대한간호, 20:4, pp. 39~49.

者自身이 未來의 예측된 현상을 오늘의 教科課程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신감과 創意力を 가지고 모델이 되어야 하며, 다섯째 研究 및 학생들의 學習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意思決定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看護教育의 제 년회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을 알아보면, 새로운 看護教育理念과 哲學, 看護教育에 대한 國제적・국가적・사회적요구, 教育專門家の 意見 그리고 학생 자신의 興味・要求 및 觀心등이 있다.⁷⁾⁸⁾⁹⁾¹⁰⁾ 이를 要因등에서 教育行政家들이 教科課程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看過하기 쉬운 것이 학생 자신의 興味・要求 및 觀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학교당국에서 일방적으로 教科課程을 결정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충수・이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전통적인 思考方式이 残在해 있는 실정이며, 朝鮮¹¹⁾의 연구에 의하면 教科課程 계획서 학생의 참여도는 13%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제17차 I.C.N 총회에서 大韓看護協會가 주관한 폐널 토의의 주제가 未來를 위한 看護教育－教育의 同力者・教授와 學生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외에도 看護教育을 效果的으로 계획 운영하기 위한 많은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 看護學生의 觀心度를反映한 看護教育 역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에 본 연구자는 看護學生들의 관심이 무엇이며, 그 특별한 관심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하여 看護education 계획과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B. 研究의 目的

看護education에 대한 간호학생의 관심도를 조사하여 看護education 教科課程의 계획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目的是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생의 學業・自己自身・臨床實習場에 대한 관심을 알아본다.
- 2) 간호학생의 學業・自己自身・臨床實習場에 대한 관심의 學年間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C. 用語의 定義

7) W.T., Ralph,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0), pp. 4~28.

8) 박찬자, “간호교육에 대한 일 연구”, 간호학회지, 4:3, 1974, pp. 63~76.

9) 박은목, “미래주의 교육철학시론”, 대전간호논문집, 제4집, 1978, p. 43.

10) 차선정, “간호학교 그파과정 발전을 위한 기초 일 조사”, 간호학회지, 2:1, 1971, pp. 201~215.

11) 양기서, p. 205.

12) 이희승편, 국어大字典, (서울, 민족서판, 1973), p. 280.

13) L.P. Karen I.S. Andrew. & S.G. Judith, “Concerns of Final Semeste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Res.*, 28:5, 1979, pp. 302~304.

14) 영남대학교, 교양설리, (서울, 중앙격성연구소, 1973), pp. 48~60.

1) 學業에 대한 觀心; 간호학생의 學問的인 面과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환경적 오인 즉 理論涵義・臨床實習・教科課程・教授要員・학교의 환경과 시설등에 대한 觀心을 의미한다.

2) 自己自身의 個人的인 문재에 대한 觀心; 간호학생 각個人 자신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 즉 對人關係・시를활동이나 취미활동・就業・宗敎나 자아개념・家庭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3) 臨床實習場에 대한 觀心; 간호학생이 병원, 시・역사회보전소, 산업장등에서 배하게 되는 환자・보호자・선배간호원・의사 및 의료요원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D. 研究의 制限點

1)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대구직한시내에 있는 2개 간호전문대학과 김천시내에 있는 1개 간호전문대학에 局限되어 있으므로 그結果를一般化하기는 어렵다.

II. 文獻考察

A. 觀心

觀心이란 ‘마음’ 풀리거나 마음에 두고 잊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특별철학에서는 Interesse 즉 價値있는 것에 주의하는 心的態度를 의미한다.¹²⁾ Newlove와 Hall에 의하면 “특별한 論點(issue)이나 과업에 주어지는 感情・先立見・思考와 고려(consideration)들의 복합적인 表現을 관심(concern)이라 부르며, 이것을 質問하고 分析하고 代案을 고려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精神活動을 뜻한다”라고 하였다.¹³⁾

觀心과 유사한 뜻을 가지는 興味(interest)와 欲求(needs)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興味는 어떤 대상의 內容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수반하는 感情으로, 그 대상에 대한 受容이나 拒否와 같은 선별적인 행동태세 즉 어떻게 反應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¹⁴⁾ 또 興味란 어떤 특정한 종류의 행동에 몰리는 一般化된 행동경향으로 이는 自然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幼兒期

부터의 經驗이나 學習을 통하여 얻어지며 成長함에 따라 능동적·구체적·종합적인 것으로 일관성있게 변한다고 한다.¹⁵⁾ 欲求는 어려운 일에 대하여 얼마만큼 하고 싶어하느냐를 意味하며, Murray¹⁶⁾의 欲求理論에 의하면 屈從의 욕구, 成就의 욕구, 親愛의 욕구, 攻擊의 욕구, 支配의 욕구, 情動의 욕구, 諂示의 욕구, 性의 욕구, 自律의 욕구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Fuller 등이 級育學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마지막 학기의 관심을 조사한 결과, 級生齊習의 초기에는 安全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후기에는自我實現과 課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Fuller와 그의 동료들은 研究를 계속하여 관심의 범주를自己自身과 관련된(self-related), 球美과 관련된(task-related), 영향과 관련된(impact-related) 범주로 細分化하고 觀心理論을 세우게 되었다.

Karen 등은 Fuller의 관심이론을 看護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세분화범주를 일부 수정하여 課業과 관련된(學業과 專門職에 관한 사항), 自己自身과 관련된(각個人에게 적합적으로 연관되는 사항), 看護對象者 즉 患者와 관련된(client-related) 범주로 바꾸어서 연구를實施하였다. 그들은 마지막 학기의 看護學生들의 관심이 학기초에는自己自身과 관련된 관심이 높을 것이고 후기에는 看護對象者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假說을 설정하였는데, 의외로 간호대상자와 관련된 관심이 아주 낮게 나타났다¹⁷⁾고 보고하였다.

B. 看護教育

1) 看護教育의 理念과 目的

우리나라의 초창기 간호교육은 병원부설 양성소 형식으로 회생과 병사주의에 입각하여 의사와 치사에 따라 아픈 사람을 잘 간호하는 간호원을 기르는 정도의 目的이 그쳤으나, 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그目的이 광범위한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을 기본으로 한 간호지식의 習得으로 고도의 기술과 정서적 성장·발전을 통하

여 協同정신이 풍부한 指導者的 인격을 구비한 전문적인 간호원을 養成하는데 있다고 하였다.¹⁸⁾

70년도 충만기의 간호교육 목적으로는 발전하는 社會要求에 따라 질병위주가 아닌 인간위주, 병원위주가 아닌 지역사회위주의 경향을 가지고 치료사업에서 건강증진·유지·회복사업을 잘당한 專門職業人으로서의 간호원대출을 들 수 있었다.¹⁹⁾ Ole Sand는 간호교육의 目的이 첫째 좋은 人性을 소유한 교양있는 간호원育成, 둘째 간호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전업적 능력 합양, 셋째 다른 직업인들과의 상호의존성을 이해시켜 직업으로서의 責任感 고양, 넷째 責任있는 公民으로서의 간호원 育成, 다섯째 간호원으로서의 인격합양등이 바탕이라고 하였으며,²⁰⁾ 김²¹⁾은 1977년 우리나라와 美國의 간호교육 특성을 비교연구한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이 共通의으로 指導者的役割, 간호지식 및 기술습득, 社會福祉, 地域社會奉仕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질병중심의 치료적인 간호형태위주의 目標가 우세하고, 미국의 경우는 간호원의自我實現을 위한 능력배양 위주의目標가 우세하다고 하였다. 제17차 I.C.N총회 쇄별토의에서 홍²²⁾은 간호교육의 理念내지 目的이 일차건강관리 간호조직의 求現에 대응하여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았던 診療의 의무와 對外的組織活動에 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2) 教育課程 및 内容

教育課程이란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의 達成을 위하여 學生에게 필요한 모든 經驗을 조직하고 재구성하여 제공해 주는 教育計劃(Educational Planning)이며,²³⁾ 교육과정 設定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教育目的, 教育內容 및 教科, 학생들의 學習經驗 및 要求, 教育評價, 教授行政, 社會的 requirement, 경제적 및 정치적 등을 들 수 있다.²⁴⁾

看護學 教育課程은 역동하는 사회의 진작 및 간호요구를 감당함에 있어 근거 있는 단계으로 간호행위를 계획할 수 있는 전문인을 人間的으로 育成할 수 있는 教

15) 장윤희, 이은숙, 김미자, “학업성취와 신뢰적 및 가정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11: 6, 1972, pp. 42~51.

16) 길기숙, “간호전문대학생의 욕구구조에 관한 일 연구”, 녹립의료원간호논문집, 제 1권, 1979, pp. 173~207.

17) L.P., Karen, I.S. Andrew & S.G., Judith 전개서, p. 304.

18) 이진경, “간호교육과 간호연구”, 대한간호, 10: 3, 1971, pp. 61~66.

19) 김도임, “현대간호교육의 방향”, 대한간호, 13: 6, 1974, pp. 17~21.

20) Sand, Ole., *Curriculum Study in Basic Nursing Education*, (New York, G.P. Putnam's Sons, 1955), pp. 25~29.

21) 길정자, “한미 간호교과과정의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7: 2, 1977, pp. 60~79.

22) 홍여신,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 이념”, 대한간호, 20: 4, 1981, pp. 27~38.

23) 임진진, 이주윤, 전재서, p. 84.

24) 김애진, “간호학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 2, 1974, pp. 1~12.

育課程이어야 하며, 그方法로 現場實習, Off-Campus研究, Team Work 形成,²⁵⁾ 그리고 Team Teaching²⁶⁾ 등이 있다.

現行 간호교육과정의 내용은 크게 一般教育(General Education), 補助科學(Supporting Science), 그리고 專攻教育(Professional Educa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一般教育은 한 인간으로서 또한 특수사회의構成員으로서의個人을 發展시키기 위한 内容을 포함하며, 補助科學은 原理·개념·사실을 나타내는·과목들로 看護理論과 실천을 밀접하고 보조하는 과정을 말하고, 專攻教育은 전문적인 간호실무에 필요한 知識·態度·技術의 발전을 위한 内容이 포함된다.²⁷⁾

一般教育은 Phenix의 理論에 따라 表象的인 것(symbolic), 經驗的인 것(Empirics), 美的인 것(Aesthetics), 깨달는 것(Synnoetics), 儉廉的인 것(Ethics) 및 개괄적인 것(synoptics)으로 나누기도 하고,²⁸⁾ Greene의 見解에 의해 内容敎科, 形式敎科, 表現敎科, 技能敎科 및 統合敎科로 나눌 수도 있다.²⁹⁾

補助科學으로는 物理科學, 生物科學, 社會科學, 行動科學, 保健科學 및 教育學을 들 수 있고, 專攻教育은 看護基礎學과 主專攻看護學으로 나눌 수 있다.

차³⁰⁾에 의하면 1971년 부산지역 간호학교의 교과부 수를 비교한 결과, 教養 10, 基礎 6.25, 專攻 15.75과 목이었으며, 연³¹⁾은 2년제 초급대학 과정을 가상하여 一般敎養 22.8%, 基礎學科 20.0%, 專攻學科 42.9%, 臨床實習敎養 14.3%의 學點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진³²⁾은 韓美 看護敎科課程을 비교연구한 결과, 韓國간호대학에서는 教養 30.4%, 補助課程 11.8%, 專攻科目 46.2%, 教職課程 11.6%인데 비해, 美國간호대학에서는 教養 44.2%, 補助課程 17.1%, 專攻科目 38.7%를 이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0년 전국의 30개 간호전문대학의 교과과정을 調查한 결과, 一般敎養 51.5 학점(23.9%), 補助科學 58학점(26.9%), 專攻敎養 106학점(49.2%)인 것으로 나타났다.³³⁾

3) 未來看護敎育의 方向

2000년까지 세계의 모든 인구에게 基本的인 건강관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W.H.O UNICEF의 일차건강관리 개념과 이 일차건강관리가 대부분 간호원에 의해 제공될 후세에 대비하여, 未來의 간호원들은 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教育과 訓練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³⁴⁾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現 간호교육제도를單一化시키고 통합한 教育目的을 설정하여 실제와 이론간의 차이를 最小화하고, 둘째 계속적인 보수敎育·inservice education seminar·해외연수敎育 등을 통해 간호학 교수진의 資質향상에 힘쓰며, 셋째 대도시와 지방간호교육의 交流를 꾀하고, 넷째 全人看護를 바탕으로 質的간호의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을 再調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³⁵⁾은 未來의 看護敎育者를 준비시키는 전략을 첫째 간호원의 훈련수준을 전문적 賽務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면허를 높일 것, 둘째 訓練수준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학사 및 석사간호교육과정을 발전 확대할 것, 셋째 現存하는 간호교육 program의 質을 높힐 것으로 들고, 質 향상의 방안으로는 간호교육자들의 國際적인 交流, 대학에서의 계속敎育 program, 대학원 입학자격에 2~3년의 賽務經驗을 추가할 것 등으로 밝혔다.

未來의 새로운 敎科課程 개발의 제안점을 보면, 첫째 새로운 교과과정의 개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교수진의 協力과 參與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과과정은 의학모델이 아닌 간호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간호모델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모두 직접 看護業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넷째 배출되는 학생들의 준비정도가 그 지역사회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섯째 그 지역사회와 固有한 文化的要素가 포함되어야 한다³⁶⁾ 등이다.

25) Panlette Robischon, "Trends in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Nursing Out.*, 20:4, 1972, pp.273~276.

26) O.H. Mildred & Nancy L.A., "Making Team Teaching Work", *Nursing Out.*, 27:1, 1979, pp.48~51.

27) 김정자, 전계서, p. 64.

28) 김예실, 전계서, p. 3.

29) 김정자, 전계서, p. 71.

30) 차선정, 전계서, p. 203.

31) 변창자, 전계서, p. 74.

32) 김정자, 전계서, p. 69.

33) 김혜숙, 이영희, "간호전문대학 교과과정의 분석적 연구", 월간간호, 5:7, 1981, pp.55~64.

34) 김소인, 전계서, p. 75.

35) 김수지, 전계서, p. 49.

36) 김의숙,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교육", 대한간호, 20:4, 1981, pp.50~59.

III. 研究對象 및 方法

A. 研究對象

본 연구는 1981년 10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대구 직할시내에 있는 2개 간호전문대학과 김천시내에 있는 1개 간호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實施하였다. 1학년 232명, 2학년 165명, 3학년 173명으로 총 570명의 응답을 얻었으나 그중 調問紙作成이 미비한 것을 제외하여 1학년 230명, 2학년 165명, 3학년 170명 총 56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B. 研究道具

간호학을 專攻하고 있는 학생들의 觀心을 알아보기 위해서 Fuller³⁷⁾의 觀心理論과 Karen 등³⁸⁾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多肢選擇法으로 작성된 이 설문지를 가지고 미리 선정된 6명의 학생에게豫備調査를 실시한 후, 설문지의 용어와 文章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觀心의 개괄

2) 學業에 대한 觀心

3) 自己自身의 個人的인 問題에 대한 觀心

4) 臨床實習場에 대한 觀心

研究對象

학년	조사수	비율(%)
1	230	40.71
2	165	29.20
3	170	30.09
계	565	100

C. 研究方法

1개 간호전문대학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기입하게 한 후 끝나는대로回收하는 集合調查를 하였고, 다른 2개 간호전문대학에서는 연구자가 대상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가 1주일 후에回收하는 留置調查를

실시하였다.

資料處理 方法으로는 각 관심항목에 대한 學年別 빈도를 백분율로 구하고, 각 관심항목에 대한 學年別 反應의 통계적有意性을 검증하기 위해서 χ^2 -test를 사용하였다.

IV. 研究結果

A. 觀心의 개괄

간호학생들의 觀心의 개괄은 <표 1-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自己自身의 個人的인 問題에 대한 관심이 59.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學業에 대한 관심 20.53%, 臨床實習場에 대한 관심 19.82%의順이었다.

學年별로 보면, 1학년에서는自己自身의 個性的인 問題에 대한 관심이 47.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상실습장에 대한 관심 33.91%, 學業에 대한 관심 18.70%의順이었다. 2학년은 자기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63.03%, 학업에 대한 관심 24.85%, 임상실습장에 대한 관심 12.12%의順이었고, 3학년은 자기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72.94%, 학업에 대한 관심 18.82%, 임상실습장에 대한 관심 8.24%의順이었다.

觀心의 개괄에 대한 學年別 反應은 <표 1-2>와 같다. 學業에 대한 관심을 보면 2학년이 24.85%, 3학년 18.82%, 1학년 18.70%이었으며, 통계적으로有意하지 않았다($\chi^2=2.666, df=2, p>0.05$).

自己自身의 個性的인 問題에 대한 관심을 보면 3학년 72.94%, 2학년 63.03%, 1학년 47.39%로 高學年 일수록 높은 비율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chi^2=27.643, df=2, p<0.01$).

臨床實習場에 대한 관심은 1학년 33.91%, 2학년 12.12%, 3학년 8.24%로 低學年 일수록 높았고,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chi^2=49.245, df=2, p<0.005$).

박³⁹⁾이 학생들의 당면문제를 조사한 결과 장례·퇴업·가정·학비·異性문제등 個性的인 문제가 64.98%, 學習문제가 12.99%, 實習문제가 5.65%로 나타났으며 문·갈⁴⁰⁾은 학생들의 근심 불안을 느끼는 일을 조사한 결과, 個人문제 83.7%, 學業문제 12.45%라고 밝혔

37) F.F. Fuller "Concerns of Teachers; A Developmental Conceptualization". *Am. Educ. Res. J.* 6, 1969, pp. 207~226.

38) L.P., Karen, I.S., Andrew, & S.G., Judith, 전개서, p.303.

39) 박준자, "국립의료원 간호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일 기초조사", 대한간호, 15:3, 1976, pp.51~58.

40) 문희자, 갈희선, "간호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I)", 경희간호연구지, 제 1권, 1977, pp.79~90.

〈표 1-1〉

觀心의 개괄

항 목	학년	1		2		3		계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학습에 대한 관심		43	18.70	41	24.85	32	18.82	116	20.53
자기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109	47.39	104	63.03	124	72.94	337	59.65
임상실습장에 대한 관심		78	33.91	20	12.12	14	8.24	112	19.82
계		230	100	165	100	170	100	565	100

〈표 1-2〉

觀心의 개괄에 대한 學年別 反應

항 목	학년	조사 수		관심 있다		관심 없다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학업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43	18.70	187	81.30
	2	165	100	41	24.85	124	75.15
	3	170	100	32	18.82	138	81.18
	계	565	100	116	20.53	449	79.47
		$\chi^2=2.666$		$df=2$		$p>0.05$	
자기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109	47.39	121	52.61
	2	165	100	104	63.03	61	36.97
	3	170	100	124	72.94	46	27.06
	계	565	100	337	59.65	228	40.35
		$\chi^2=27.643$		$df=2$		$p<0.01$	
임상실습장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78	33.91	152	66.09
	2	165	100	20	12.12	145	87.88
	3	170	100	14	8.24	156	91.76
	계	565	100	112	19.82	453	80.18
		$\chi^2=49.245$		$df=2$		$p<0.005$	

다. 박⁴¹⁾은 학생들의現在 당면한 문제를 여러가지個人的 문제 53.1%, 學習 및 實習문제 38.6% 정도라고 했으며, 조⁴²⁾는 여러가지個人的 문제 61.6%, 學習 및 實習문제 38.9%라고 하였다. 서⁴³⁾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現在 가장 고민되는 일이 學習문제 57.1%, 家庭・異性 등個人문제 34.06%, 實習문제 8.79%로 나타났으며, Karen 등⁴⁴⁾에 의하면 線業과 관련된 관심 56.

5%, 自己自身과 관련된 관심 38.92%, 看護對象者와 관련된 관심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의 간호학생들이個人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 때, 教育的 측면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現在 각 고등교육기관에서는個人別指導敎授制, 개방학습, 시간별, 학과별 또는 학년별 주임교수제, full time

41) 박철자, “간호교육에 대한 일부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 연구”, 월간간호, 2:5, 1978, pp.111~126.

42) 조경순, “간호교육에 대한 일부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 대한간호, 16:6, 1977, pp.56~70.

43) 서미선, “국군간호학교 재학생 현황분석”, 국군간호논문집, 제 1집, 1977, pp.231~248.

44) L.P., Karen, I.S., Andrew, & S.G., Judith, 정계서, p.303.

카운슬러의 個人相談 또는 集團相談 등이 시도되고 있다.

人間은 언제나 직면하고 있는個別的인 문제가 있으며 각자의 문제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해결책으로 相談을 생각할 수 있다.⁴⁵⁾ 相談이란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言語的 수단으로 來談者의 自我實現을 듣는 행위로서⁴⁶⁾ 個人相談과 集團相談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個人相談은 전문적인 訓練을 받은 카운슬러와 來談者 두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서 來談者는 카운슬러의 도움에 힘입어 그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척척하게 解決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課程을 말한다.⁴⁷⁾ 다음으로 集團相談이란 意識的인 畏考와 行動에 초점을 맞추면서 치료적인 기능의 허용성 現實에 대한 인식, 淩化, 상호신뢰,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수용성, 그리고 거지등을 포함하는 力動的인 대인관계로서 8~10名정도의 自願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1.5~2시간동안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⁴⁸⁾

3學年の 경우, 畢業·就業·異性교제등으로 個人的인 문제와 관련된 관심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게 보나, 臨床實習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보인다. 高學年으로 갈수록 臨床實習場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요인들을 알아보면, 高學年에서의 임상실습시간 과중, 실습교육 자체에 대한 취미 부족, 效果의인 실습지도

방법의 결여, 현 임상실습장體制의 부적절성, 그리고 畢業이 주는 Stress등을 들 수 있다.

윤·찰⁴⁹⁾에 의하면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학에 회의를 느낀 학생이 91%에 달한다고 하며, 하⁵⁰⁾는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상실습 분량이 많은 편이이라고 반응한 학생이 3학년 22.4%, 4학년 38.5%라 하였으며, 김⁵¹⁾이 3년제 간호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결과에 의하면 實習時間이 많다고 반응한 학생이, 1학년 29.14%, 2학년 82.35%, 3학년 94.18%나 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研究에서 韓國의 학생들이 畢業후 병원에 취업하여 臨床看護원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에 비한 심각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理論과 實習의 접근, 實習시간 재조정, 임상실습지도의 철저, 그리고 임상실습에 즐거움을 유발하는 다양한 방법과 새로운 도구의 이용⁵²⁾ 등을 기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3학년 2학기의 학생을 임상에서 치할 때 학생이 되기 보다는 책임을 가진 전문직업인으로 대해 주되, 그들의 역할 면화를 시도하여 낮은 임상실습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B. 畢業에 대한 觀心

간호학생들의 畢業에 대한 관심은 (표 2-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看護學의 臨床的인 面에 대한 관심이

〈표 2-1〉

學業에 대한 觀心

학년 비율 항 목	학년						학년	
	1		2		3		계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간호학의 이론적인 면에 대한 관심	67	29.13	68	41.21	80	47.06	215	38.05
간호학의 임상적인 면에 대한 관심	137	59.57	53	32.12	52	30.59	242	42.83
교과과정에 대한 관심	8	3.47	22	13.33	27	15.88	57	10.09
교수요원에 대한 관심	6	2.61	9	5.46	9	5.29	24	4.25
학교의 환경과 시설에 대한 관심	12	5.22	13	7.88	2	1.18	27	4.78
계	230	100	165	100	170	100	565	100

45) 이화춘, “간호교육에 있어서의 생활지도와 상담요건의 충족”, 춘천간호논문집, 제 9집, 1979, pp. 6~10.

46) 金明禮, “간호교육을 위한 개별적 상담의 문헌적 고찰”, 개정간호논문집, 제 3집, 1981, pp. 177~195.

47) Edwin Lewis, *The Psychology of Counseling*, (Holt Reinhart & Winston Inc., 1970), p 11.

48) 이혜성, “질본상급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고찰과 그 운영방법”, 주일강좌, 1: 4, 1981, pp. 58~63.

49) 문희자, 갈피선, 전재서, p. 87.

50) 하영수,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연구(Ⅱ)”, 한국생활과학연구소논총, 제 6집, 1971, pp. 237~262.

51) 김종배, “간호전문대학과 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의 전공과정에 대한 대도조사”, 동선간호논문집, 제 2집, 1984, pp. 1~49.

〈표 2-2〉

學業에 대한 慶心의 學年別 反應

항 목	조사 수		관심 있다		관심 없다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간호학의 이론적인 면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67	29.13	163	70.87
2	165	100	68	41.21	98	58.79
3	170	100	80	47.06	90	52.94
계	565	100	215	38.05	350	61.95
	$\chi^2=14.320$		$df=2$		$p<0.01$	
간호학의 임상적인 면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137	59.57	93	40.43
2	165	100	53	32.12	112	67.88
3	170	100	52	30.59	118	69.41
계	565	100	242	42.83	323	57.17
	$\chi^2=44.390$		$df=2$		$p<0.005$	
교과과정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8	3.47	222	96.53
2	165	100	22	13.33	143	86.67
3	170	100	27	15.88	143	84.12
계	565	100	57	10.09	508	89.91
	$\chi^2=19.280$		$df=2$		$p<0.01$	
교수요원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6	2.61	224	97.39
2	165	100	9	5.46	156	94.54
3	170	100	9	5.29	161	94.71
계	565	100	24	4.25	541	95.75
	$\chi^2=2.532$		$df=2$		$p>0.05$	
학교의 시설과 환경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12	5.22	218	94.78
2	165	100	13	7.88	152	92.12
3	170	100	2	1.18	168	98.82
계	565	100	27	4.78	538	95.22
	$\chi^2=8.416$		$df=2$		$p<0.05$	

42.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看護學의 理論的인 면에 대한 관심 38.05%, 教科課程에 대한 관심 10.09%, 學校의 환경과 시설에 대한 관심 4.78%, 教授要員에 대한 관심 4.25%의順이었다.

學年별로 보면 1학년에서는 간호학의 임상적인 면에 대한 관심이 59.57%로 首位였으며 간호학의 이론적인 면에 대한 관심이 29.13%로 次位였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낮았다. 2학년의 관심을 살펴보면

간호학의 이론적인 면에 대한 관심 41.21%, 간호학의 임상적인 면에 대한 관심 32.12%, 교과과정에 대한 관심 13.33%, 학교의 환경과 시설에 대한 관심 7.88%, 교수요원에 대한 관심 5.46%의順이었다. 3학년에서는 간호학의 이론적인 면에 대한 관심 47.06%, 간호학의 임상적인 면에 대한 관심 30.59%, 교과과정에 대한 관심 15.88%의順이며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았다.

學業에 대한 觀心의 學年別 反應은 <표 2-2>와 같다. 看護學의 理論的인 面에 대한 관심을 보면, 3학년 47.06%, 2학년 41.21%, 1학년 29.13%로 高學年일수록 관심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4.320$, $df=2$, $p<0.01$).

看護學의 臨床的인 面에 대한 관심을 보면, 1학년 59.57%, 2학년 32.12%, 3학년 30.59%로 低學年일수록 관심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44.390$, $df=2$, $p<0.005$).

敎科課程에 대한 관심을 보면, 3학년 15.88%, 2학년 13.33%, 1학년 3.47%로 高學年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9.280$, $df=2$, $p<0.01$).

敎授要員에 대한 관심을 보면, 2학년 5.46%, 3학년 5.29%, 1학년 2.61%로 學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2.532$, $df=2$, $p>0.05$).

學校의 환경과 시설에 대한 관심을 보면, 2학년 7.88%, 1학년 5.22%, 3학년 1.18%로 특히 2학년이 높은 비율이었고 이는 등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chi^2=8.416$, $df=2$, $p<0.05$).

본 연구에서 看護學의 理論的인 面이라 함은 간호학 원론, 간호이론, 건강개념 및 질병에 대한 知識을 연마하는 것을 의미하며, 看護學의 臨床的인 面이라 함은 臨床實習과 그에 따른 기술적인 면 즉 기초간호 학실에서의 실습・ward class 등을 포함한다.

Karen 등⁵³⁾에 의하면 간호학생들의 敎授와 行政구조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았고, 조⁵⁴⁾는 교수진에 대한 불만족이 高學年의 경우 증대한다고 했으며, 박⁵⁵⁾은 47.46%의 학생들이 교수와의 유대관계를 불만족해 한다고 밝혔고, 문・잘⁵⁶⁾에 의하면 교수와 친선한 대화 분가・인간적 유대관계 없다고 답한 학생이 84.8%나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敎授要員에 대한 관심이 4.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크게 불만족 없다는 궁금증적인 면과 유대관계가 거의 없다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敎授는 社會

의 대표자로서, 판단자로서, 知識資源으로서, 학습助力者로서, 訓育者로서, 학생들의同一化對象으로서, 불안체거자로서, 자아옹호자로서, 질단의 지도자로서, 부모의 대용자로서, 적대감정의 표적으로서, 친구로서 예정상태자로서의 역할⁵⁷⁾을 다 감당해야 하므로 敎授要員들의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하겠다.

최⁵⁸⁾의 연구에서는 高學年에서 오히려 理論的價值觀이 저하된다고 하였고, 김・이⁵⁹⁾의 연구에 의하면 看護學이 專門的學問이다라고 반응한 학생이 4학년에서 유의하게 많아졌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看護學의 理論的인 面에 대한 관심이 高學年일수록 높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

看護學의 臨床的인 面에 대한 관심은 1학년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未知의 것,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反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隨狀 Orientation과 事前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敎科課程에 대한 관심이 高學年에서 有意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⁶⁰⁾에 의하면 敎養科目이 부족하다고 반응한 학생이 1학년 39%, 2학년 67%, 3학년 74%였다 하며, 김⁶¹⁾은 敎養科目이 1학년에 73.1%, 2학년에 16.5%, 3학년에 5.4%, 4학년에 5.0% 부과되어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 敎科課程에 대한 관심이 高學年일수록 높아진 이유도 敎養科目의不足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看護란 인간과 인간의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며 그 대상이 다양하고, 인간을 충분히 理解해야 하고, 여러 사람과 접촉해서 일해야 하므로 전문적 學問知識은 물론 충분한 敎養을 겸비해야 한다.⁶²⁾⁶³⁾ 이에 敎養科目的 확충과 學年別 再分配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C. 自己自身의 個人的인 問題에 대한 觀心

간호학생들의 自己自身의 個性的인 問題에 대한 觀

53) L.P., Karen, I.S., Andrew, & S.G., Judith, 전개서, p.303.

54) 조경술, 전개서, p.62.

55) 박준자, 전개서, p.54.

56) 문희자, 김희선, 전개서, p.85.

57) 정법도, 정원식, 김종철, 교육의 과정, (서울, 배영사, 1969), pp.90~96.

58) 최양자, “간호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17:3, 1979, pp.63~71.

59) 김광주, 이향현, “간호학생들의 호과적인 자율학습을 위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8:1, 1978, pp.16~38.

60) 서태선, 전개서, p.235.

61) 김경자, 전개서, p.69.

62) 전영자, “기초간호 교육과정에 관한 일 예”, 대한간호, 10:2, 1971, pp.77~93.

63) 허경호, “간호교육 목표의 일 시안”,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p.34.

〈표 3-1〉

自己自身의 個人的인 問題에 대한 觀心

항 목	학년 비율	학년				계			
		1 인수 비율(%)	2 인수 비율(%)	3 인수 비율(%)	인수 비율(%)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		83	36.09	33	20.00	49	28.82	165	29.20
씨클활동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		24	10.43	17	10.30	10	5.88	51	9.03
취업에 대한 관심		54	23.48	52	31.52	64	37.65	170	30.09
종교나 자아개념에 대한 관심		44	19.13	47	28.48	30	17.65	121	21.42
가정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		25	10.87	16	9.70	17	10.00	58	10.26
계		230	100	165	100	170	100	565	100

心은 〈표 3-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就業에 대한 관심이 30.09%로 首位, 對人關係에 대한 관심이 29.20%로 次位였으며, 다음으로 宗敎나 自我개념에 대한 관심 21.42%, 家庭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 10.26%, 씨클活動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 9.03%의 順이었다.

學年別로 보면 1학년에서는 對人關係에 대한 관심이 36.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就業에 대한 관심 23.48%, 宗敎나 自我개념에 대한 관심 19.13%, 家庭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 10.87%, 씨클活動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 10.43%의 順이었다.

2학년의 관심을 살펴보면 취업에 대한 관심이 31.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宗敎나 自我개념에 대한 관심 28.48%,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 20.00%, 씨클활동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 10.30%, 가정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 9.70%의 順이었다. 3학년에서는 취업에 대한 관심이 37.65%로 首位,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이 28.82%로 次位였으며, 다음으로 종교나 자아개념에 대한 관심 17.65%, 가정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 10.00%, 씨클활동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 5.88%의 順이었다.

自己自身의 個性的인 問題에 대한 관심의 學年別反應은 〈표 3-2〉와 같다. 對人關係에 대한 관심을 보면 1학년 36.09%, 3학년 28.82%, 2학년 20.00%로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chi^2=12.041$, $df=2$, $p<0.01$).

씨클活動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을 보면 1학년 10.43%, 2학년 10.30%, 3학년 5.88%로 매우 낮은 觀心度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2.922$, $df=2$, $p>0.05$).

就業에 대한 관심을 보면, 3학년 37.65%, 2학년

31.52%, 1학년 23.48%로 高學年일수록 높은 비율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chi^2=9.548$, $df=2$, $p<0.01$).

宗敎나 自我개념에 대한 관심을 보면, 2학년 28.48%, 1학년 19.13%, 3학년 17.65%로 특히 2학년에서 종교나 자아개념에 대한 관심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7.040$, $df=2$, $p<0.05$).

家庭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을 보면, 1학년 10.87%, 3학년 10.00%, 2학년 9.70%로 낮은 觀心度를 나타냈으며,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0.162$, $df=2$, $p>0.05$).

간호전문대학의 教育目的이 中堅職業人 育成인 만큼 就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게 보이며, 看護職이 對人間 적업이므로 對人關係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당연한 일이다.

씨클活動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이 9.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⁶⁴⁾의 연구결과 49%의 학생이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시간에 협박여 취미생활을 하지 못해서라고 반응했던 것과는 相異한 결과이다. 간호학 학습분량이 바학과보다 많기 때문에 씨클활동과 취미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힘들겠지만, 씨클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대인관계의活性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학교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個人의 個性的인 問題에 대한 學年別反應을 보면, 對人關係에 대한 관심이 1학년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就業에 대한 관심은 高學年일수록 높아졌으며, 宗敎나 自我개념에 대한 관심은 2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각 학년의 관심에 따라 적당한 教養科目을 선정하여 教科課程을 계획하고, 3학년에서는 就業담당 지도교수

64) 하영수,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I)”, 한국생활과학연구소논총, 제3집, 1969, pp.139~149.

〈표 3-2〉

自己自身의 個人的인 問題에 대한 觀心의 學年別 反應

항 목	조사 수 인수 비율(%)		관심 있다 인수 비율(%)		관심 없다 인수 비율(%)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						
학년 1 2 3 계	230	100	83	36.09	147	63.91
	165	100	33	20.00	132	80.00
	170	100	49	28.82	121	71.18
	565	100	165	29.20	400	70.80
$\chi^2=12.041$		$df=2$		$p<0.01$		
체계화된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						
학년 1 2 3 계	230	100	24	10.43	206	89.57
	165	100	17	10.30	148	89.70
	170	100	10	5.88	160	94.12
	565	100	51	9.03	514	90.97
$\chi^2=2.922$		$df=2$		$p>0.05$		
취업에 대한 관심						
학년 1 2 3 계	230	100	54	23.48	176	76.52
	165	100	52	31.52	113	68.48
	170	100	64	37.65	106	62.35
	565	100	170	30.09	395	69.91
$\chi^2=9.548$		$df=2$		$p<0.01$		
종교나 자아개념에 대한 관심						
학년 1 2 3 계	230	100	44	19.13	186	80.87
	165	100	47	28.48	118	71.52
	170	100	30	17.65	140	82.35
	565	100	121	21.42	444	78.58
$\chi^2=7.040$		$df=2$		$p<0.05$		
가정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						
학년 1 2 3 계	230	100	25	10.87	205	89.13
	165	100	16	9.70	149	90.30
	170	100	17	10.00	153	90.00
	565	100	58	10.26	507	89.74
$\chi^2=0.162$		$df=2$		$p>0.05$		

제를 채택하여 就業相談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에 대한 관심은 0.89%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 臨床實習場에 대한 觀心

간호학생들의 臨床實習場에 대한 觀心은 〈표 4-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患者에 대한 관심이 72.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 및 의료요원에 대한 관심 18.05%, 선배간호원에 대한 관심 8.67%의順이고,

學年별로도 같은 結果를 나타내어, 1, 2, 3학년 모두患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의사 및 의료요원에 대한 관심이 次位였으며, 선배간호원에 대한 관심과 보호자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臨床實習場과 관찰을 觀心에 대한 學年別反應은 표 4-2와 같다. 患者에 대한 관심을 보면 1학년 77.39%,

〈표 4-1〉

臨床實習場에 대한 관심

항 목	학년 비율	1		2		3		계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환자에 대한 관심		178	77.39	121	73.33	110	64.71	409	72.39
보호자에 대한 관심		1	0.43	3	1.82	1	0.59	5	0.89
선배 간호원에 대한 관심		10	4.35	13	7.88	26	15.29	49	8.67
의사 및 의료 요원에 대한 관심		41	17.83	28	16.97	33	19.41	102	18.05
계		230	100	165	100	170	100	565	100

〈표 4-2〉

臨床實習場에 대한 觀心의 學年別 反應

항 목	학년 비율	조 자 수		관 심 있 다		관 심 없 다	
		인수	비율(%)	인수	비율(%)	인수	비율(%)
환자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178	77.39	52	22.61
2		165	100	121	73.33	44	26.67
3		170	100	110	64.71	60	35.29
계		565	100	409	72.39	156	27.61
		$\chi^2=7.964$		$df=2$		$p<0.05$	
보호자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1	0.43	229	99.57
2		165	100	3	1.82	162	98.18
3		170	100	1	0.59	169	99.41
계		565	100	5	0.89	560	99.11
		$\chi^2=2.166$		$df=2$		$p>0.05$	
선배 간호원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10	4.35	220	95.65
2		165	100	13	7.88	152	92.12
3		170	100	26	15.29	144	84.71
계		565	100	49	8.67	516	91.33
		$\chi^2=14.948$		$df=2$		$p<0.01$	
의사 및 의료요원에 대한 관심							
학년 1		230	100	41	17.83	189	82.17
2		165	100	28	16.97	137	83.03
3		170	100	33	19.41	137	80.59
계		565	100	102	18.05	463	81.95
		$\chi^2=0.338$		$df=2$		$p>0.05$	

2학년 73.33%, 3학년 64.71%로 低學年일수록 관심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chi^2=7.964$, $df=2$, $p<0.05$).

보호자에 대한 관심을 보면 2학년 1.82%, 3학년 0.59%, 1학년 0.43%로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0.338$, $df=2$, $p>0.05$).

2.166, df=2, p>0.05).

선배간호원에 대한 관심을 보면 3학년 15.29%, 2학년 7.88%, 1학년 4.35%로 高學年일수록 선배간호원에 대한 관심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4.948$, df=2, p<0.01).

의사 및 의료오원에 대한 관심을 보면 3학년 19.41%, 1학년 17.83%, 2학년 16.97%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0.338$, df=2, p>0.05).

患者와의 관계는 임상실습중 가장 중요한 관계이므로 患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로 보인다. 보호자란 患者的 家族 친척등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서 家族의 유대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보호자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점이 많다⁶⁵⁾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는 간호학생들의 선배간호원에 대한 관심이 의사 및 의료오원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났다는 점이었다. 민⁶⁶⁾에 의하면 임상간호원의 학생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항목에서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74.7%, 보통이다 23.8%, 관심이 크다 1.5%였다고 하며, 김·이⁶⁷⁾는 학생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동기중에서 기성간호원이 가장 빈약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낮은 선배간호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臨床看護員에서는 首看護員이 教育的 입장을 취하여 실습교육에 責質感을 느끼고 教育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⁶⁸⁾, 졸업간호원들도 再教育과 계속교육을 받아 새로운 知識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측에서는 선배간호원과 학생들이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여 理論과 實習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高學年일수록 선배간호원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사실로 보인다.

E. 試 案

이상의 研究結果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試案을 제시한다.

전체적인 面에서, 첫째 自己自身의 個人的인 問題와 관련된 관심이 가장 높으므로 精神科 담당교수에게 카

운슬링敎育을 받게하여 相談敎授로 活用하는 방안, 둘째 써클活動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으므로 학도호국단 各部活動이나 써클活性化계획을 세워서 장려하는 방안, 세째 선배간호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으므로 學生·臨床看護員·敎授의 課程이나 Ward Class를 주기적으로 가지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다.

1학년을 위하여, 첫째 臨床實習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첫 臨床實習前에 Orientation을 철저히 시키고 임상을 답사하게 한 후 위치나 느낌등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 둘째 對人關係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人間關係·意思疎通論·心理學등의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들이 있다.

2학년을 위하여, 宗敎나 自我개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宗敎敎育·哲學 등의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이 있다.

3학년을 위하여, 첫째 臨床實習場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教授들이 3학년 2학기부터 임상에서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이라기 보다는 責任을 가진 專門人으로 대해주고 畢業看護員의 임무를 일부맡기는 형태를 개발하여 臨床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안, 둘째 就業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취업지도교수제를 채택하는 방안들이 있다.

IV. 結論 및 提言

A. 結 論

1981년 10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韓大醫院서울에 있는 2개 간호전공대학과 김천시내에 있는 1개 간호전공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 230명, 2학년 165명, 3학년 170명, 총 565명을 研究對象으로 하여 看護學生의 觀心이 무엇이며, 그 學年別 觀心度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觀心의 개발을 보면 自己自身의 俗人的인 問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59.65%).

2. 學業에 대한 관심은 學年別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 自己自身의 個人的인 問題에 대한 관심은 高學年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 이귀향, 이영복, 간호사회학, (서울, 수문사, 1974), pp.37~89.

66) 민복기, “임상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의 연구”, 대전간호논문집, 제 3집, 1977, pp.95~107.

67) 진광주, 이향현, 계제서, p.37.

68) 김광주, “간호교육 및 업무의 실제와 문제점”, 대한간호, 14:5, 1975, pp.51~58.

($p < 0.01$), 臨床實習場에 대한 관심은 低學年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5$).

3. 學業에 대한 觀心을 細部的으로 보면 看護學의 臨床的인 面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42.83%).

4. 看護學의 理論的인 面에 대한 관심은 高學年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看護學의 臨床的인 面에 대한 관심은 低學年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05$), 教科課程에 대한 관심은 高學年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教授要員에 대한 관심은 學年別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 > 0.05$), 學校의 환경과 시설에 대한 관심은 2학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5. 自己自身의 個人的인 問題와 관련된 관심을 細部的으로 보면 就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30.09%).

6. 對人關係에 대한 관심은 1학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서클活動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은 學年別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 > 0.05$), 就業에 대한 관심은 高學年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宗教나 自我개념에 대한 관심은 2학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家庭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은 學年別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7. 臨床實習場에 대한 관심을 細部的으로 보면 患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72.39%).

8. 患者에 대한 관심은 低學年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05$), 보호자에 대한 관심은 學年別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 > 0.05$), 선배간호원에 대한 관심은 高學年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의사 및 의료요원에 대한 관심은 學年別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B. 提 言

1. 看護學生의 觀心에 대해 표질태상을 확대하여 더 광범위하고 종점적으로 研究하기를 提言한다.

2. 각 看護界 學校에서는 간호학생의 觀心度를 教科課程 계획과 生活指導방안에 反映시킬 것을 提言한다.

3. 時間의·환경적 차이에 따른 看護學生의 觀心度 변화와, 學業成績·實習成績과 觀心度의 상관관계 여부를 비교연구하기를 提言한다.

참 고 문 헌

1. 강봉규, 향운자, 간호연구별, 서울, 축문사, 1980.
2. 강운희, 이은숙, 김애자, “학업성취와 심리적 및 가정환경적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11:6, 1972, pp. 42~51.
3. 김광주, “임상간호교육의 진행과정에 있어”, 대한간호, 13:6, 1974, pp. 57~60.
4. 김광주, “간호교육 및 업무의 실재와 문제점”, 대한간호, 14:5, 1975, pp. 51~58.
5. 김광주, 이향련, “간호학생들의 효과적인 자율학습을 위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8:1, 1978, pp. 16~38.
6. 김기숙, “간호전문대학생의 욕구구조에 관한 일 연구”, 국립의료원간호논문집, 제 1집, 1979, pp. 173~207.
7. 김모임, “현대간호교육의 방향”, 대한간호, 13:6, 1974, pp. 17~21.
8. 김소인, “2000년대의 간호교육방향”, 원간간호, 6:1, 1982, pp. 72~76.
9. 김수자, “미래간호교육자의 역할과 이를 위한 준비”, 대한간호, 20:4, 1981, pp. 39~40.
10. 김예실, “간호학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2, 1974, pp. 1~12.
11. 김의숙,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교육”, 대한간호, 20:4, 1981, pp. 50~59.
12. 김정자, “한미 간호교과과정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7:2, 1977, pp. 60~79.
13. 김중배, “간호전문대학과 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의 전공과정에 대한 태도조사”, 동산간호논문집, 제 2집, 1981, pp. 1~49.
14. 김혜숙, 이연희, “간호전문대학 교과과정의 분석적 연구”, 원간간호, 5:7, 1981, pp. 55~64.
15. 문희자, 갈희선, “간호학생들의 가치판에 관한 조사연구(I)”, 경희간호연구지, 제 1권, 1977, pp. 79~90.
16. 민복기, “임상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의 연구”, 대전간호논문집, 제 3집, 1977, pp. 95~107.
17. 박온록, “미래주의 교육철학시론”, 대전간호논문집, 제 4집, 1978, p. 43.
18. 박청자, “간호교육에 대한 일부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연구”, 원간간호, 2:5, 1978, pp. 111~

- 126.
19. 박준자, “국립의료원간호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일 기초조사”, *대한간호*, 15 : 3, 1976, pp. 51~58.
20. 변창자, “간호교육에 대한 일 연구”, *간호학회지*, 4 : 3, 1974, pp. 63~76.
21. 서예선, “국군간호학교 재학생 현황분석”, *국군간호논문집*, 제 1집, 1977, pp. 231~248.
22. 신춘해, “간호학의 입학전 제특성 및 경험과 입학후 만족도와의 관계”, *중앙의학*, 34 : 2, 1978, pp. 203~226.
23. 영남심리학회, *교양심리*,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73.
24. 이귀향, 이영복, *간호사회학*, 서울, 추분사, 1974.
25. 이진경, “간호교육과 간호연구”, *대한간호*, 10 : 3, 1971, pp. 61~66.
26. 이혜성, “집단상담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고찰과 그 운영방법”, *주임강좌*, 1 : 4, 1981, pp. 58~63.
27. 이화순, “간호교육에 있어서의 생활지도와 상담요건의 층족”, *춘천간호논문집*, 제 9집, 1979, p. 6.
28. 이희승현,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73.
29. 임진현, 이규윤, *교육원리*, 서울, 동문사, 1974.
30. 전영자, “기초간호교육과정에 관한 일례”, *대한간호*, 10 : 2, 1971, pp. 77~93.
31. 경필도, 경월식, 김종철, *교육의 과정*, 서울, 배영사, 1969.
32. 조경순, “간호교육에 대한 일부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 *대한간호*, 16 : 6, 1977, pp. 56~70.
33. 조영희, “간호교육을 위한 개별적 상담의 문제적 고찰”, *개정간호논문집*, 제 3집, 1981, pp. 177~195.
34. 차선정, “간호학교 교과과정 발전을 위한 기초 조사”, *간호학회지*, 2 : 1, 1971, pp. 201~215.
35. 최양자, “간호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17 : 3, 1979, pp. 63~71.
36. 하영수, “4년제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I)”, *한국생활과학연구소논총*, 제 3집, 1969, pp. 139~149.
37. 하영수, “4년제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II)”, *한국생활과학연구소논총*, 제 6집, 1971, pp. 237~262.
38. 하영수외, “한국간호교육 이념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대한간호협회보고서*, 1974~1976.
39. 허경호, “간호교육목표의 일 시안”, 경북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40. 홍여신, “간호행정 및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계획”, *대한간호*, 13 : 5, 1974, pp. 48~56.
41. 홍여신,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 이념”, *대한간호*, 20 : 4, 1981, pp. 27~38.
42. Barbara, Thomas, “Promoting Creativity in Nursing Education,” *Nursing Res.*, 28 : 2, 1979 pp. 115~119.
43. Edwin Lewis, *The Psychology of Counseling*, Holt Reinhart & Winston Inc., 1970.
44. F.F., Fuller, “Concerns of Teachers: A Developmental Conceptualization,” *A. Educ. Res. J.*, Vol. 6, pp. 207~226.
45. S.S., Fuller, “Hollistic Man & The Science & Practice of Nursing”, *Nursing Out.*, 26 : 11, 1978, pp. 700~704.
46. L.P., Karen, I.S., Andrew, & S.G., Judith, “Concerns of Final Semeste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Res.*, 28 : 5, 1979, pp. 302~304.
47. Margaret Courtney, “The Diploma Programs”, *R.N.*, 34 : 5, 1971, pp. 36~39.
48. Mary Gamar, “The Ideology of Professionalism” *Nursing Out.*, 27 : 2, 1979, pp. 108~111.
49. O.H., Mildred, & L.A., Nancy, “Making Team Teaching Work”, *Nursing Out.*, 27 : 1, 1979, pp. 48~51.
50. R.L.B., Neame, & D.A., Powis, “Toward Independent Learning Curricular Design For Assisting Students to Learn How to Learn”, *J. of Medical Educ.*, 56 : 11, 1981, pp. 886~892.
51. Ole, Sand *Curricular Study in Basic Nursing Education*, New York, G.P. Putnam's Sons, 1955.
52. Panlette, Robischon, “Trends in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Nursing Out.*, 20 : 4, 1972, pp. 273~276.
53. W.T., Ralph,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0.
54. R.D., Tornyay, & M.L., Russel, “Helping the High-Risk Students Achieve”, *Nursing Out.*, 26 : 9, 1978, pp. 576~580.

—Abstract—

A Study on Nursing Education Reflecting Concerns of Nursing Students

Park, Jeong Sook
(Dong San Junior College of Nur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concerns of nursing students and reflect of the planning in nursing education.

The study lasted 48 days, starting October 5, 1981, and going through November 21, 1981, surveying 565 students in two Junior Colleges of nursing in Taegu, and one in Kimche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General concerns: self-related concerns were highest. (59.65%)

The study-related concern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chool years ($p>0.05$); the higher the year, the higher the self-related concerns became ($p<0.01$); the lower the year, the higher the clinical practice-related concerns were ($p<0.001$).

2. Study-related concerns: concerns of clinical aspects of nursing were highest. (42.83%)

The higher the year, the higher the concerns of theoretical aspects of nursing became ($p>0.05$); the lower the year, the higher the concerns of clinical aspects of nursing became ($p<0.005$); the higher the year, the higher the concerns of curriculum became ($p<0.01$); concerns of faculty member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years ($p>0.05$); in the 2nd year, concerns of schoo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facilities were highest ($p<0.01$).

3. Self-related concerns: concerns of employment were highest. (30.09%)

In the 1st year, concerns of human relationships showed the highest response ($p<0.05$); concern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hobbie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years ($p>0.05$); the higher the year, the higher the concerns of employment became ($p<0.05$); among the 2nd year students, the highest response was concerns for religion and their own self-concept ($p<0.05$); concerns of home and economic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years ($p>0.05$).

4. Clinical practice-related concerns: concerns for patient were highest. (72.39%)

Concerns for patient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years ($p>0.05$); concerns of patients familie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he higher the year, the greater the concerns for becoming a R.N. ($p<0.01$); concerns of physicians and other medical member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years ($p>0.05$).